

하상주보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2년 2월 6일
제1882호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도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물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루카 5,10-11)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부르심〉, 두초 디 부오네페나

연중 제5주일 (다해)

제 1 독서 이사 6,1-2 7.3-8 |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화답송 시편 138(137) |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제 2 독서 1코린 15,1-11 <또는 1코린 15,3-8.11>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복음 루카 5,1-11 |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 1 예수님께서 켈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 2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 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 3 예수님께서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물에서 조금 저어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 4 예수님께서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 5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6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 7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 8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 9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 10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 11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물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복음 묵상

오늘 독서와 복음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보잘것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오로지 하느님의 은총으로 선택되어 특별한 소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제1독서에서 자신을 ‘입술이 더러운 사람’으로 묘사한 이사야는 ‘숯’의 정화로 새로워져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입술을 지니게 됩니다. 제2독서에서 바오로는 과거에 교회를 박해하던 자신의 처지가 오로지 하느님의 은총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이제는 당당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오늘 복음에서,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두려운 나머지 그분께 죄 많은 자신을 떠나 주십사 청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오히려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선택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서는 사회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였던 사람들,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을 당신의 일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드러날 놀라운 업적이 오로지 하느님에게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도 오늘 제2독서에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모든 것이 은총이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거룩한 사제가 되기에 한없이 부족한 저를 부르시고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날들을 떠올려 보면, 저의 사제 직무를 통하여 이루신 그분의 놀라우신 업적이 마치 제게서 비롯된 것인 양 착각했던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구성원에게도 자주 찾아올 수 있는 유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늘 질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의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가?’

(정천 사도 요한 신부)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루카 6,36).

고통받는 이들 곁에서 사랑의 여정을 함께하기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루카 6,36).

이번 제30차 세계 병자의 날을 위하여 선택한 이 주제는 “자비가 풍성하신”(에페 2,4) 하느님께서로 우리가 먼저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당신 자녀들을 언제나 보살피십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당신께 등을 돌릴 때에도 그리하십니다. 자비는 하느님의 탁월한 이름입니다. 자비는 이따금 우리나라는 감정이 아니라 언제나 현존하며 작용하는 힘으로서, 하느님의 본성 자체를 드러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아버지의 강인함과 어머니의 온유함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고자 하십니다.

병자들을 향한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의 최고 증인은 그분의 외아드님이십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만나신 이야기를 수없이 들려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온 갈릴래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마태 4,23).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이시어,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 주라고 스승님께 파견받은 사도들의 사명에서(루카 9,2 참조) 병자들을 걱정하는 일을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신 이유를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보건 의료 종사자 여러분, 여러분이 병자들 곁에서 사랑과 힘을 다하여 실천하는 봉사는 직업이라는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의 사명이 됩니다. **고통받는 그리스도의 몸을 어루만지는 여러분의 손은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손길의 표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업의 위대한 품위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명심하십시오.

지난 삼십 년 동안 보건 사목 또한 없어서는 안 될 봉사라는 인식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건강의 빈곤을 겪는 병자들을 비롯하여 빈곤한 이들이 받는 최악의 차별이 영적 관심의 부족이라면, 우리는 성사 거행과 신앙 성장과 성숙의 여정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에게 하느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알리고 하느님의 축복과 말씀을 전하는 일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아픈 이들에 대한 친밀함과 사목적 돌봄은 임명받은 특정 사목자의 일만이 아니라는 점을 모든 이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병자 방문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제자에게 하시는 초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병자와 연로한 이들이 집에서 머물며 방문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위로의 직무는,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다.”(마태 25,36)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면서 세례 받은 모든 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전문 - <https://cbck.or.kr/Notice/20220012>〉

2월 11일 세계 병자의 날

교회는 해마다 2월 11일을 ‘세계 병자의 날’로 지내고 있다. 이는 프랑스 루르드의 성모 발현에서 비롯되었다. 성모님께서서는 1858년 2월 11일부터 루르드에 여러 차례 나타나셨는데,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92년부터 해마다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인 이 발현 첫날을 ‘세계 병자의 날’로 지내도록 하였다. 이날 교회는 병자들의 빠른 쾌유를 위하여 기도한다. 또한 병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인도 함께 기억하며 병자들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책임감을 다지도록 기도한다.

파트타임 신자

우리는 특정 시간이나 특정 상황에서 혹은 특별한 결단에 의해서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파트타임’ 신자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1 알링턴 교구 신문을 위한 2차 헌금

- 이번 주일(2월 6일)은 알링턴 교구 신문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2월 13일(일) 오후 1시 (B-3,4)

3 텃밭 가꾸기 세미나(교육부)

- 일시 : 2월 13일(일) 오전 11:30
- 주제 : 실습을 위주로 한 텃밭 가꾸기
- 강사 : 원응식 요셉(농학박사)

4 2022년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 약정 안내

- 매년 사순 시기 동안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를 약정받습니다. 2022년 우리 본당에 할당된 금액은 \$161,000입니다. BLA에 대해서는 차후 설명과 함께 약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참조 : <https://www.arlingtondiocese.org/bla>

5 가톨릭 성서모임 2022년 봄학기 그룹원 모집

성서를 함께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생활화할 그룹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 대상 : 청년(19세-39세) / 어버이(40세 이상)
- 공부 기간 : 15주(주 1회 2시간)
- 공부 과정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 신청 방법 : 청년 - bit.ly/spc2022s
어버이 - bit.ly/cblm2022s
- 신청 마감 : 22년 2월 13일까지
- 등록비 : \$30(해설서 구입 시 +\$20-\$25)
- 문의 : 청년 - 강동철 로베르도 (571) 432-9950
어버이 - 신상희 글라라 (703) 399-4768
이메일 - spccblm@gmail.com

6 유아 세례 안내

- 유아 세례식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성소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안내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본당에 성소자들과 성소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가 봉헌됩니다. 본당 성소 후원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신학생들을 위해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 Defending Life Day

- 버지니아 주 정부에서는 3월 리치먼드에서 생명을 살리는 친 생명 법안을 포함하여 2,000여 개가 넘는 법안에 대해 토론할 것입니다. 신자 여러분은 낙태반대와 생명수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 Vaprolifeday.org



DIOCESE OF ARLINGTON

1974-2024

알링턴 교구 설정 50주년

알링턴 교구는 2024년 교구 설정 50주년 회년을 준비하며 신앙의 기본 진리에 대한 영적, 지적 쇄신을 향하여 3년 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Year One (2021.11.21 시작)

“Remember” :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구의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합니다.

<https://www.arlingtondiocese.org/jubileehome/>

날씨에 관한 본당(알링턴 교구) 지침

- 질병이나 약천후(홍수, 허리케인, 폭설)로 인하여 미사 참석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미사참례 의무가 면제된다. 대신 교회는 대송(공소예절, 기도, 성서 읽기, 선행)을 바칠 것을 권고한다. ([교구 웹사이트 참조](#))
- 우리 본당은 약천후와 관련해 Fairfax County Public School 지침을 따르며, 이에 따라 건물 사용 및 행사(활동)가 취소된다. (www.fcps.edu 참조)
- 본당의 미사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거행되며 약천후로 인해 미사참례 의무는 없지만 부득이 미사참례를 할 경우에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 약천후로 인하여 바닥이 미끄러운 날은 굽이 높은 신발이나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은 절대로 신지 않는다.

코로나19 본당 수칙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CDC에서는 오미크론에 **천 마스크나 멘탈용 마스크는 면역력이 떨어지므로 KF 94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당 미사 참례와 모임시에 **KF 94**를 써주시고, 평일 미사에는 지정된 자리에만 앉아 주세요.

- 미사 참석자는 꼭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 성당에 들어갈 때는 꼭 **손 소독**을 해야 합니다.
- 평일미사 때는 **표시된 좌석**에 앉아 주세요.
- 회합을 할 때에 마스크를 꼭 쓰고** 합니다.
- 회합 장소는 사전에 사무실과 협의합니다.

병자를 위한 기도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앓는 사람에게 강복하시고 갖가지 은혜로 지켜 주시니 주님께 애원하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아무)의 병을 낫게 하시며 건강을 도로 주소서.
-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팔로 감싸 주시며 주님의 힘으로 굳세게 하시어 더욱 힘차게 살아가게 하소서.**
- ◎ 아멘.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해 많은 모임이 제한되고 있지만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단체를 이끌어 주시는 단체인皆様께 감사드리며, 조만간 모임이 재개되는 시간까지 대면, 비대면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1월 30일(연중 제4주일)

주일헌금	\$ 5,305.00
교무금	\$ 9,630.00
교무금(신용카드)	\$ 4,310.00
감사 헌금	\$ 500.00
온라인 봉헌	\$ 970.00
합계	\$ 20,715.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정바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2월 10일(목) 오후 5:00-6:00
2월 11일(금) 저녁 8:00-9:00
2월 13일(일) 오전 6:00-7:00

- 신부님 주일 강론
- 특강 : **윤원진 비안네 신부**
“위대한 성인들”(27)
- 카니시오 성인과 십자가 요한 성인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